

바다 자원 관리·잠녀문화 보존 의지 축제로

제3회 해녀축제 9~10일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서
일본 아마 참가·'잠녀 선언문'채택 등 의미 더해

등록 : 2010년 10월 08일 (금) 00:03:40
최종수정 : 2010년 10월 08일 (금) 00:03:4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해녀춤 숨비소리

지난해 신종플루로 무산됐던 제3회 해녀축제가 내용을 재정비, 오는 9~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해녀박물관 주최·해녀축제집행위원장(위원장 이재현)주관의 이번 해녀축제는 제주잠녀 문화를 한 자리에 모아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타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또 일본 아가가 특별 초청돼 지난 9월 일본 제2회 아마대집합 축제에 이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에 대한 양국의 기대감을 확인하게 된다.

행사 첫날인 9일에는 구좌읍사무소에서 해녀박물관까지 전통복장을 한 제주 잠녀와 일본 아가의 퍼레이드가 펼쳐져 바다를 중심으로 문화를 꾸렸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거리행진에 이어 진행되는 잠녀대회에서는 바다 자원 관리와 잠녀 문화 보존 의지를 담은 '잠녀 선언문도' 낭독된다.

제주 전통 잠수굿의 맥을 잇고 있는 김녕리 잠수굿이 바다 조업에서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독립무용단과 일본 도바시 초가지마 사롱고 마츠리팀이 각각 '해녀춤'으로 소통한다.

잠수옷 등 과거 잠녀들의 작업복과 세화고 학생들이 꾸리는 '잠녀복 패션쇼', 해녀노래 전승보존을 위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안덕면 대평리 잠녀들의 공연도 마련됐다.

둘째날인 10일에는 하도리 서문동 바닷가에서의 '잠녀 물질대회'와 불턱 체험, 전국 잠녀사진 촬영대회 등이 진행된다.

테왁망사리 맹글기(만들기) 체험, 잠녀시화전, 영화 '해녀 양씨' 상영회 등이 부대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문의=710-7774.